

5/14(토) 에스라 8-10장 꽃샘추위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유대인 담당 서기관(비서)>이었습니다.

그는 제국의 관리로서 파견 지역을 안정시킬 임무와 권한이 있었습니다(7:12-13,21).

에스라는 제국의 안정적인 통치와 안녕을 위해 파견되었습니다(7:23).

그러나 에스라는 영적인 눈으로 형제들을 바라보았습니다(7:10, 8:21,23,31).

백성들은 이방인과 통혼하는 등 율법에 태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9:1-2).

에스라는 공동체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까 염려하며 탄식합니다(9:7-10).

그는 백성들의 요청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영적 개혁을 실시합니다(10:1-4,12,15).

이들의 개혁은 차별, 인권의 관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성전 건축에 협조하겠다는 본토 생존자들을 배제하고 있는 점이나(4:3),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공동체에서 끊어버린 기록들 때문입니다(10:11,44).

당시 귀환 공동체는 열세했으며 비주류에 가까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예배 공동체>의 비전을 품고 귀환했으나

제국과 지역의 주류들에 저지되거나 동화(흡수)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새 시대의 변곡점에 선 공동체는 과감한 결단을 감행합니다.

하나님 없이 택한 일들로 감내할 고통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10:10-12,44).

그럼에도 공동체는 정치화되고 혼합된 종교로부터 구별되어(왕하17:24-28,33)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려 몸부림 쳤습니다.

귀환 공동체는 아직 만연한 봄을 맞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부족한 구원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사59:1).

새로운 공동체는 시련 속에서 영적으로 각성하며 결집하는 훈련 중에 있습니다.

타협인가 포용인가, 배제인가 구별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훈련 중에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 재건을 통해 이스라엘 역시 견고해 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꽃샘추위를 견뎌냈니까?

❶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훈련과정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❷ 새로운 삶의 변곡점 앞에서 과감히 결단하고 있습니까? 실행하고 있습니까?

시작기도 + 통독 에스라 8-10장